

인사말(안)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화쟁(和諍).

경전 속에 머물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문학이나 드라마 등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입니다.

이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것들이 알고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 많지만, 실상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보편적 삶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일체유심조’에 담겨진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원효스님의 일화를 통해 일반에 널리 퍼져, 우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을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쟁’사상은 현시대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에서 기인한 다양성과 불평등, 그리고 갈등이라는 사회의 여러 문제를 조화롭게 치유하자는 그야말로 시대의 ‘화두(話頭)’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사람들에게 알린 일이 원효스님으로부터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원효스님은 ‘해골물’ 일화를 통해 일체유심조를 우리에게 설교함으로써 역사적 인물에 머물지 않고 어느 시대이건 동시대의 인물처럼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드라마와 음악, 춤, 무대와 조명, 미술 등 모든 장르가 종합적으로 참여하는 예술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종합예술의 총아라고도 불립니다. 일상에 널리 퍼진 원효스님의 이야기를 다시 뮤지컬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선보이고자 하는 것은 뮤지컬이라는 예술 장르가 원효스님의 가르침에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최고의 제작진이 모여 정상급 배우들과 호흡을 맞춰 선보이는 뮤지컬 ‘쌍화별곡’은 원효스님의 가르침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의상스님의 이야기가 더해져 이전보다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1,200년 전 이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린 두 스님은 역사 속에 머물지 않고 뮤지컬을 통해 다시 태어나 현재를 사는 우리와 함께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 공연을 통해 만나는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이 우리를 향해 던져주는 화
쟁의 메시지는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따라야 할 귀감이 되어
줄 것입니다.

2012년 9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